

전북 교육 소식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통해 달라지는 학생들

전라북도교육청은 올해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사업학교 131교와 연계학교 174교 총 305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올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으로 119억 3,340만원을 투입하고, 사업학교에는 교육복지사를 배치해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들이 학생의 성장이라는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 형편이 어렵고 어려서부터 몸이 허약해 초등학교 때부터 또래들로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해 지각과 결석이 잦았던 학생 영민이(가명). 영민이가 다니던 중학교 교육복지사는 영민이가 주변의 지지도가 적어지면 충분히 성장 가능한 학생이라고 판단, 복지실 도우미로 임명해 교육복지실 프로그램 신청과 복지실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겼고, 이로 인해 친구관계나 학교생활도 좋아지고 적극적으로 성격으로 변해갔다.

영민이는 중학교 내내 교육복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진로 프로그램과 선취해 멘토링, 교내·외 자원봉사에도 연간 40시간 이상씩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진로도 정하고, 리더십도 향상되어 갔다.

고등학교의 스카웃 제안까지 받으며 진학한 영민이는 고등학교 2학년인 현재 정규 교과 학습이외의 시간은 청소년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 동아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토요일 동아리 활동에서 코치 및 운영 지도를 하며 진로와 관련된 경력을 쌓아가고 있다.

관내 고등학교 입학에 원하던 초기와는 달리 입학에 앞장선 자신의 미래에 절망한 스마트폰 몰입으로 시간을 보내던 동준(가명)이.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많고 회피가 강한 상담도 거부한 동준이었던 교육복지사의 진해차 지원이 위한 부단한 노력 덕에 교육복지에서 진행하는 캠프에는 웃기는 척 참여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진심으로 마음을 열지는 않는 학생이었다.

3학년이 되면서 혼자서 공부해보겠다고 나름 노력해왔던 성과가 없자 신경질적으로 변해가는 동준이를 지켜보던 교육복지사가 담임들을 통해 두드림학교 참여를 권유하게 되었다. 혼자서 성공 없었던 동준이는 울면서 그동안 숨겨왔던 고민을 쏟아내게 되었고 공부하고 싶는데 산만하고 스마트폰을 자제할 수 없고 고스트리우니 도와달라고 했다. 1년 이상 자신에게 꾸준히 관심을 가져준 교육복지사에게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것이다.

올해 여름방학 때 동준이네 학교에서는 동준이와 비슷한 고민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명 '꿈길 방학교실'. '꿈길 방학교실'은 참여하는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을 만들어가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꿈을 향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탐색하는 여행으로 꾸며진다. 공부하는 방법 익히기, 독서지표로 통해 책과 친해지고 자기성장 시간 갖기, 부친 한국문화박물관 방문해 민화가 세상 알아보기 등의 내용으로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3주간 운영한다.

요즘 동준이는 방학교실에 대한 기대감으로 표정이 부쩍 밝아졌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다. 서경주 교육혁신과장은 "전북교육청은 학생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지원을 강화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 부안지역 사립고교 성추행 감사·조사, 철저히 학생 입장에서

## 확대간부회의서 "학생 조사시 특히 주의해야"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부안지역 사립고교의 학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진행할 때는 철저히 학생의 입장과 심리상태 등을 고려할 것을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10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해당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할 때는 사전에 기관(교육청과 경찰관) 협조가 필요하다. 학생들 입장에서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경찰과 교육청의 면담이 거듭 오히려 하는 것이 적잖을 수 있다. 더구나 면담 내

용이 명단과 함께 고소한 학교에 넘겨진 사례가 있어 학생들의 불신이 상당히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면담조사를 하기 전 상담전문의 의견을 들을 것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나아가 면담조사를 감사담당공무원이 반드시 직접 해야 되는 건 아니면서 "학생들이 더 편안한 심리상태에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상담 전문가들이 면담을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된 교장과 교감, 교사는 물론이고 학교법인 이사회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학교법인이 따르지 않아도 도교육청이 대처할 수 있는 유효한 법률적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며 "비리사학을 보호하고 사학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구실만 하고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최근 발표한 부안지역 여고의 학교수 조정은 이번 성추행 비리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부안지역의 학교 시스템을 들여다 본 결과, 이 지역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여학생들이 일반계 고교로 진학하려 할 때 선택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 지역 학생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 시스템을 개혁해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는 일이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교육계 최대 이슈인 교육부 개편 문제와 관련, "우리 도교육청의 입장은 확실하다. 대통령 공약사항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 유·초·중·고 교육, 아무런 유보 없이 사·도교육청에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순창 청소년 문화의집 이유 있는 인기몰이

## 보드게임 및 만화카페방 오픈

### 주말 하루 100명 넘는 청소년 이용

순창 청소년 문화의집이 보드게임 및 만화카페방을 새롭게 신설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군은 청소년 문화의집에 보드게임 및 만화카페방을 정식 오픈했다. 기존 청소년 문화의집 2층 공간에 1,500만원을 투자해 리모델링을 진행해 완료 했으며 작은 예산으로 공간 활용성을 대폭 높였다는 장점이 있다. 66㎡에 8개의 독립적 공간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3-4명씩 모여 수업을 하거나 다양한 보드게임도 즐기고 만화리본 다양한 책들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소년문화의집이 지역 청소년들의 명실상부한 커뮤니티센터로서 위상을 확실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청소년문화의집은 평일에는 50여명 주말에는 하루 100여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주말에는 문화의집 이용을 위해 줄을 서는 광경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청소년센터에는 헬스, 밴드, 노래연습실, 포켓볼, 등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려 즐기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다양하다. 특히 요즘 심하게 유행 치해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대폭 높인 점도 인기의 비결이다.

또 한 가지 청소년문화의집 인기 비결은 다양한 프



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의 참여를 대폭 높인 점이다.

순창청소년문화의집은 여기문화활동을 통해 핑퐁대회, 포켓볼대회, 송사방대이 등을 진행하고 여름·겨울 청소년 캠프를 진행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있다.

또 청소년성장학교, 동아리 소모임활동동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축제 만들기, 단오문화제, 청소년 어울림마당, 진로야 놀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 문화 활동을 해 나갈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통해 청소년 스

## 수학적 사고방향중 확 높이자

### 전북도교육청, 다양한 학생 수학캠프 개최

전라북도교육청은 논리·창의적인 사고력 증대 및 학생 중심으로서의 수학교육 전환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수학적 사고력 증진과 자발적 학습동기 형성을 위한 2017 진북 고등학생 수학동아리 연합캠프를 개최한다.

전북교육청은 7월 27일부터 28일 까지 1박 2일 동안 부안청소년수련원에서 도내 고등학교 수학동아리 학생 120여명을 대상으로 2017 수학동아리 연합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전북교육청이 주관, 전북중등수학교육 연구회가 추진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7월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캠프에서는 각 학교 수학동아리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수학적 사고력 고인하며 성장 할 수 있는 계기 제공을 위해 동아리 활동 사례발표와 전북수학체험센터 소개, 외부 강사 초점 강연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한 2017 진북 수학 창의캠프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8월 18일, 19일 전북과학교육원에서 열린다.

수학에 관심 있는 4학년 이상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당 5명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7월 18일 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캠프는 프로젝트 제작 발표, 문제제 학생 활동, 모둠별 문제 해결 활동 등 수학적 창의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려운 수학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학적 사고력이 증진될 것이다"고 말했다.

# 부안여고 3학급 감축, 부안여상 일반고 2학급 신설

전라북도교육청이 부안지역 여중학생의 고교 선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종래 부안여고 4개 학급을 4개로 조정하는 한편 부안여자상업고에 일반고(보통과) 2개 학급을 신설하는 '부안여 여자 일반고 학생배치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상업계 3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는 2018년부터 상업계 학급을 1개로 축소하는 대신 일반고 2개 학급을 신설한다. 또 7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부안여자고등학교는 입학지원 자연 감소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4개 학급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부안교육지원청은 부안지역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

기로 했다. 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는 교명 변경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최근 부안여고 체육교사의 성추행사건이 전국적인 이슈가 될 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여고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부안여중 졸업생 82.2%가 동일 재단 소속인 부안여고에 진학해야 하는 현실이 성추행 사건을 구조화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번 학생배치계획에 부안지역의 입학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실을 감안해 부안여고 학급수를 3개 감축하는 대신 부안여상에 2개

학급을 신설하는 등 전체적인 학급수 1개를 줄이는 조치를 내렸다. 부안지역 여학생 졸업예정자는 올해 233명이나 ▲2018년 181명 ▲2020년 178명 ▲2022년 153명으로 매년 줄어든다. 여기에 부안지역 여학생의 70%가량이 관내 여자 일반계고로 진학하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1-2개 학급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북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은 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의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을 지원하고, 교원 배치, 일반고와 상업계열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는 학과 개편과 교명 변경 신청을 할 계획이며 부안교육지원청은 공립 여자 일반고 설치에 따른 부안지역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최첨단 스마트 도서관으로! **확~** 우리학교 도서관이 바뀝니다!

아 리학/상 스마트 **체험도서관**

- 박물관, 미술관, 음악회 등 다양한 현장 체험 학습 공간이 펼쳐집니다.
- 동영상과 체험도서, e-book으로 헌정보다 더 생생하게 체험합니다.
- 학교 도서관은 물론 집에서든 손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역 체험 상담 **세화테크** 대표이사 이 지 연

010-5488-2617 seoha@seoha.com